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FinanceYahoo: 미국인 인플레이 예상치, 2020년 이래 가장 낮아
- WSJ: 연준 0.25% 금리 인하 불구, 향후 금리 경로 불투명
- Bloomberg: 연준 “트럼프로부터 연준 독립성 지키겠다”

[미국 금융]

- FinanceYahoo: 전문가들, ‘트럼프 규제완화는 은행에 패러다임 전환’ 전망
- NYT: 트럼프 재선이 미 가구에 의미하는 것은?

[미국 기후 변화 정책]

- Bloomberg: 트럼프, 바이든 기후 변화법 폐지 쉽지 않을 듯

[미국 반도체]

- NYT: 하원 소위원회, 중국과 거래하는 반도체 5개 회사에 정보 요구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6주 연속 상승, 7월 이래 최고치

[오일]

- WSJ: 유가 상승... OPEC+ 증산 연기로

[전기차]

- Bloomberg: 트럼프 시대, 전기차 성장 기대치 낮아져

[중국 경제]

- NYT: 중국, 1조4천억 불 지방정부 구제안 발표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사치품 산업의 위기
- Bloomberg: 테슬라, 월 999달러 사이버트럭 리스 시작
- WSJ: 아마존, 식료품 배달 서비스 개선
- Bloomberg: 소니, 음악 및 게임 부문 매출 증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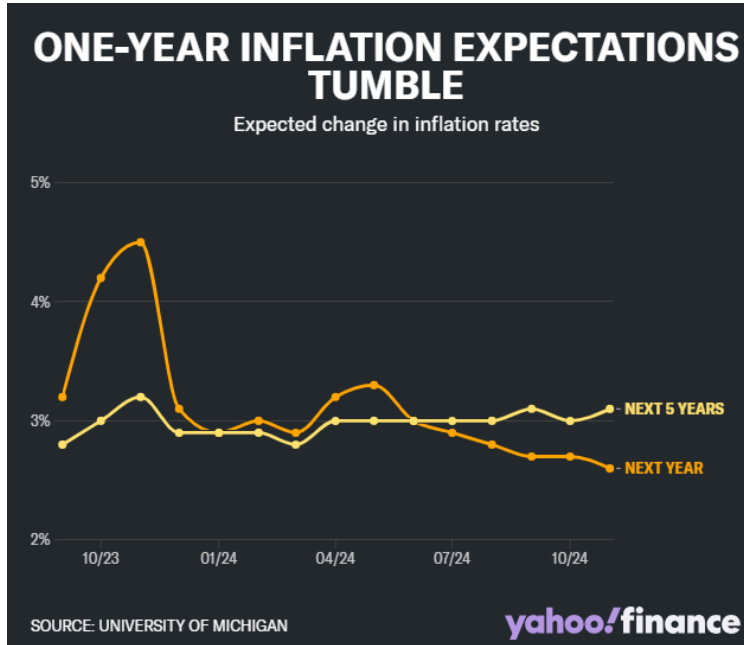
FinanceYahoo: Inflation expectations fall to lowest level since December 2020

미국인 인플레이 예상치, 2020년 이래 가장 낮아

- 미국인들이 단기적인 인플레이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다.
- 미시간대의 오늘 금요일 소비자심리지수 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인플레이 기대치가 지난달 2.7%에서 2.6%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그리고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 2년 동안의 인플레 수준 2.3%와 3.0% 사이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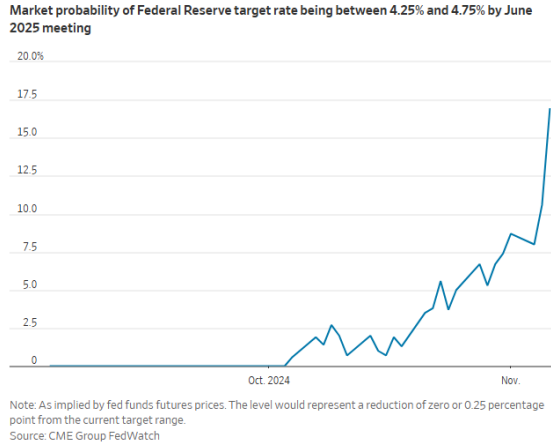
- 장기간 인플레 수치는 상승했다. 10월 3%에서 3.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연준의 목표인 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어제 목요일, 연준은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인플레 기대치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WSJ: The Fed's Next Moves Are Now Anyone's Guess
연준 0.25% 금리 인하 불구, 향후 금리 경로 불투명

- 연준은 어제 목요일 금리를 0.25% 인하했다. 그런데 12월에 또 다른 금리 하락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줄어들고 있다.
- 연준 펀드 선물 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12월 연준의 금리 그대로 유지 가능성은 14%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25%로 상승했다.
- 연준이 지난 9월만 해도 내년 말에 기준 금리가 3.25%~3.5%로 낮아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CME Group의 FedWatch에 따르면 연준이 현재부터 내년 6월까지 금리를 겨우 0.25% 나 그 이하로 내릴 가능성은 어제 목요일 기준 16.9%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명령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대중국 관세 인상이나 불법 이민 추방 조치 등이 성장에 부담을 주어 연준에 딜레마를 줄 수 있다.



WSJ 기사

Bloomberg: Powell Signals Readiness to Defy Trump in Defense of Fed 연준 “트럼프로부터 연준 독립성 지키겠다”

- 연준 파월 의장은 어제 금리를 0.25% 인하한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트럼프 재선 이후에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막을 것이며, 트럼프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자신은 의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사임 요구가 있다면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라고 분명히 답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트럼프가 자신이나 고위 연준 관리를 해고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연준에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만 임명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FinanceYahoo: Mike Mayo Sees ‘Paradigm Shift’ for Banks on Trump Deregulation

전문가들, ‘트럼프 규제 완화는 은행에 패러다임 전환’ 전망

- 대형 미국 은행의 베테랑 분석가인 Mike Mayo는 트럼프의 당선은 은행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보다는 경제를 우선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많은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세금 감면과 경제 활성화 등 정책 공약이 대출 업계의 성장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웰스 파고 등은 이번 주 수요일 주식이 10% 이상 상승했다.

FinanceYahoo기사

NYT: What a Second Trump Term Could Mean for Your Money 트럼프 재선이 미 가구에 의미하는 것은?

- **세금:** 내년엔 끝나는 표준 공제와 자녀 세금 공제를 영구화하는 것이 공화당의 정책이다. 식당과 숙박업 종사자들에 대한 팁에 대한 세금 공제는 물론, 트럼프는 유세 기간에 오버타임 임금과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서 소득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가능성도 제시했었다.
- **대학생 용자:**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광범위한 부채 탕감의 많은 부분을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교육부 폐지 약속은 의회의 투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주택:** 공화당 정당 캠페인에선 세금 인센티브를 통한 주택 소유 확대와 첫 구매자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소셜 시큐리티:** 트럼프는 캠페인을 통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 푼도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소셜 시큐리티는 출생률 저하 등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라 재원 마련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 **메디케어:** 트럼프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자격 연령도 줄이지 않고 홈케어 혜택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YT 기사

[미국 기후 변화 정책]

Bloomberg: Trump Plans to Dismantle Biden's Climate Law. It Won't Be Easy 트럼프, 바이든 기후 변화법 폐지 쉽지 않을 듯

-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시행한 인플레이 감축법(IRA Act)의 일부가 폐지되거나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 그동안 IRA 법은 미국의 탈탄소 정책을 지원하는 기업인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조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 ClearView Energy Partners에 따르면 관련법 조항 중에서 중고 및 상업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크레딧, 오일 및 가스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메탄 배출 수수료, 수십억 달러의 연방 에너지 용자 프로그램에 주어진 권한 등의 폐지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 현행 관련 법의 상당한 개정을 위해서는 공화당이 얼마만큼 하원을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반도체]

NYT: House Committee Targets Chip Technology Firms for China Ties
하원 소위원회, 중국과 거래하는 반도체 5개 회사에 정보 요구

- 연방 하원 중국 공산당 관련 소위원회가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5개 반도체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 소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서한을 발송해 중국에 반도체 기술 판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사의 매출과 주요 고객에 대한 내역 제공을 요구했다.
- 소위원회는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또한 중국의 반도체 기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지 알아낼 목적이다.
- 해당 회사들은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KLA, 일본계 회사 Tokyo Electron과 네덜란드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이다.

NYT 기사

[주택]

Bloomberg: Mortgage Rates in US Climb for Sixth Week to Highest Since July
미 모기지율 6주 연속 상승, 7월 이래 최고치

- 미 모기지율이 6주 연속 상승해 7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 고정 금리 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주 6.72%에서 6.79%로 상승했다.
- 높은 모기지율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10월 주택 구매 대출 신청 건수는 8% 감소했다. Capital Economics는 올해 주택 판매가 400만 건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Redfin에 따르면 11월 3일까지 4주 동안 판매 중인 주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 증가했다. 주택 판매에 걸리는 시간은 중간값으로 41일이 나왔다. 작년보다 약 7일 더 오래 걸린 것이다.
- 트럼프 당선 직후 수요일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증했다.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과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Oil Gains as OPEC+ Further Delays Output Hike 유가 상승... OPEC+ 증산 연기로

- OPEC+가 증산 계획을 한 달 미루면서 유가가 2% 이상 상승했다. 브렌트 유는 2.5% 상승한 배럴당 74.96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8% 상승한 배럴당 71.43달러에 거래됐다.
- OPEC+는 생산량을 하루 220만 배럴 줄이는 자발적 감축 계획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OPEC+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증산 계획을 9월에 두 달 연기했었다.
- 중국의 수요 둔화와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조치는 시장 점유율보다 가격 인상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올해와 내년 석유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분석가들은 OPEC+의 이번 조치만으로는 2025년까지 공급 과잉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WSJ 기사

[전기차]

Bloomberg: EV Growth Expectations for Trump Years Are Already Being Slashed

트럼프 시대, 전기차 성장 기대치 낮아져

- 트럼프 당선인이 친환경 정책 철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전기차 시장 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산업 전망 기관 GlobalData는 2030년 전기차의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전망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가솔린 차량 생산을 늘리고, 전기차 공장을 하이브리드 차량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붐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법(IRA)에 따라 공화당 성향 주에 많은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 AlixPartners의 글로벌 자동차 책임자 Mark Wakefield는 연비 규제에 대한 변화가 있겠지만 정책 변경에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NYT: China Reveals \$1.4 Trillion Plan to Bail Out Local Governments 중국, 1조4천억 불 지방정부 구제안 발표

- 중국 정부가 금요일, 1조4천억 달러의 경제 부양책을 승인했다. 이는 지방 정부가 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한 지원 조치라고 밝혔다. 다음 달에는 중국 중앙경제작업회의(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가 열릴 예정이다.
- 중국 지방 정부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부채를 쌓아왔다.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빌려 인프라를 건설했었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됐다.
- 금요일 발표된 경제 부양책에 따르면 추가 정부 차입이 3년 동안 약 8천3백80억 달러, 5년 동안 약 5천3백90억 달러 허용된다. 지방 정부는 고금리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다.
-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 대부분 특수 목적의 회사나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이들 회사와 기관들은 공공 예산에서 제외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이렇게 숨겨진 부채가 약 8.3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 Macquarie Group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 Larry Hu는 “중국 정부의 조치들은 약 5%의 성장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 시장 수요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Source: FactSet • By The New York Times

NY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Has Luxury Lost Its S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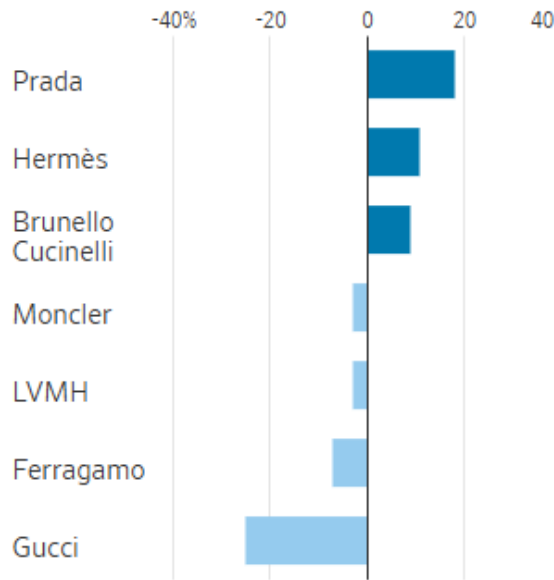
사치품 산업의 위기

- 소비자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부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 짓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명품에는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들어가게 된다.
-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8개 명품 브랜드의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4% 감소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경제 문제로 지갑을 닫은 것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현재 명품이 과연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HSBC 분석에 따르면 명품의 평균 가격은 2019년에 비해 60% 더 비싸졌다. 2019년 말 이후 명품 부문 전체의 총이익률이 상승했다. 이는 품질 투

자보다 가격 인상이 더 빠르고 높게 진행됐음을 뜻한다

- 소셜 미디어 데이터 회사 Brandwatch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증가했다. 가격 인상이 명품 브랜드의 매력을 훼손하고 있다.
- 명품을 판매하는 기술이 단순한 기능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무리 높은 가격이어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일부 브랜드는 그 기술을 잃어버리고 있다.

Luxury brands' Q3 sales, change vs. a year ago



Source: the companies

WSJ 기사

Bloomberg: Tesla Begins Offering Cybertruck Leases Starting at \$999 a Month

테슬라, 월 999달러 사이버트럭 리스 시작

-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리스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7천5백 달러 계약금에 월 999달러로 3년 리스가 가능하다. 계약금 선불이 없으면 사이버비스트 모델을 월 1,715달러에 2년 리스할 수 있다.
-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이 지난 분기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판매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신 모델S 세단과 모델X SUV와 함께 묶어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Amazon Is Looking to Revamp Its Grocery Delivery

아마존, 식료품 배달 서비스 개선

-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Whole Foods Market)의 프리미엄 식료품 사업과 아마존 프레시(Amazon Fresh)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공통 배송 플랫폼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품과 오프라인 쇼핑을 결합해 대형 식료품 체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것이다.
- 아마존 프레시는 홀푸드 제품의 배송 주문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주 Plymouth Meeting의 한 홀푸드 매장에 소형 물류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해당 센터에서 물건을 픽업할 수 있다.
- 식료품 연구 회사 Brick Meets Click의 파트너 David Bishop은 아마존이 월마트, 타겟, 크로커와 같은 대형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지배하는 식료품 시장에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고기와 농산물의 신선도를 직접 보고 고르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팬데믹 이후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 픽업, 배송받는 미국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컨설팅 회사 Bain&Co.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전체 식료품 판매 중 온라인 판매가 10.3%를 차지했다. 팬데믹 전인 2019년에는 5.3%였다.

WSJ 기사

Bloomberg: Sony Lifts Sales Outlook on Boost From Music and Games
소니, 음악 및 게임 부문 매출 증가

- 소니가 음악 판매와 중국 비디오 게임 Black Myth:Wukong의 성공으로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소니는 내년 3월에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 동안 순매출이 12조7천1백만 엔(8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 소니는 9월 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7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사업 부문에서 몇 개의 타이틀이 성공한 덕분이다.
- 하드웨어 판매의 이윤 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니는 이번 분기 380만 대의 플레이스테이션5를 판매했다.
- 소니의 음악 부문도 성장하고 있다. 소니와 협력 관계인 Spotify와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Spotify의 주가는 성장 기대 덕분에 올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금리 속도조절 언급한 파월...트럼프 취임전 내달 추가 인하하나
트럼프 대선 승리 후 연준 통화정책 변화 주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이어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음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다음달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전날 69.9%에서 이날 75.2%로 올라간 상태다.

빅컷(0.5%포인트 인하) 전망이 자취를 감춘 가운데, 전날 29.5%였던 다음달 금리 동결 전망은 24.8%로 내려갔다. 이날 금리 선물시장의 전망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